



[경제·금융]
경제동맥의
불순물 제거하라
CSI장비 도입
08

[공기업]
국토부 기관 '유리천장'
공기업 23곳 중
여성기관장 1곳뿐
L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젯빛서 장밋빛’ 한반도의 미래 바꾼 ‘9월의 어느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 입장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입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옥류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마친 후 특별수행원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김 국무위원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최태원 SK 회장(왼쪽)이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LG 회장의 기념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공연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전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